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 맑고 향기롭게




 즘 세상이 메마르고
 각박하다고들 한다.
 어디 편하게 속내를 내보이
 기도 힘들고 세상은 세상대
 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 항상
 쫓기는 기분이다. 환경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져 마실 물
 조차 안심하고 마시질 못하
 는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
 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
 어도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
 는 것도 우리들의 현 주사다.

이런 우리들에게, 잠시라
 도 잊고 살았던게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행
 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하고, 나보다는 이
 웃을 생각하며 자신의 편안
 함보다는 모두의 편안함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모임
 이 있다.

(사)맑고 향기롭게

아나바다(아껴쓰고·나뉘
 쓰고·바꿔쓰고·다시쓰기)
 정신으로 여는 알뜰 재활용
 시장 개설, 산에 묻힌 쓰레
 기 찾아 캐내기, 사찰환경

생태기행 등 환경 지킴이 활
 동, 양로원·영아원·장애인
 등의 손발이 되어 주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음
 악회 개최, 참선과 정진의
 수련회 등등이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 곳곳에
 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찾
 아볼 수 있는 ‘맑고 향기롭
 게’ 연꽃 모양 스티커도 세
 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모두
 가 함께 하지는 뜻에서 이네
 들이 무료로 보급한 것.

『우리에게 ‘무소유’란 글
 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
 을 회주(會主)로 모시고 마
 음·세상·자연을 맑고 향기
 롭게 가꾸고 살려는 이들이
 모여 만든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산중에서 참선

하며 청정한 삶이 무엇인지
 를 보여주시던 스님이, 세상
 속으로 뛰어든신거죠. 날로
 각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소중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
 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고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관계자의
 이야기다.

'94년, 처음 모임이 시작
 될 때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
 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운영위원으로 함께 했었다고
 한다. 항상 정갈하고 의미있
 는 글을 선사해 주시는 정채
 봉 선생, 윤청광 선생, 방송
 인 이계진 선생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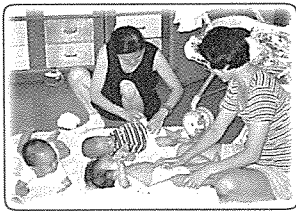
물론 이들이 모두 같은 중



교이기 때문에 함께 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종교는 다르지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일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모임을 꾸린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교나 사상을 초월하고 하나둘 모여들어 이제는 전국 9개 지부에 약 3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꽃 스티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



한 '맑고 향기롭게' 사람들의 일요일은 무척 바쁘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는 양로원을 방문한다. 양로원을 청소하고 뒷밭에 씨를 뿌리고 잡초도 제거한다. 할머니·할아버지의 손·발톱을 깎아 드리고 온천에 모시고 가 시원스럽게 등도 밀어드리고……. 무엇보다 할머니·할아버지가 그동안 잊고 지내던 가족애를 느끼게 해 드리는데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또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는 관악산 쓰레기 치우기 캠페인, 넷째주 일요일에 떠나는 생태계 기행 등 평일 업무에 바빴던 몸과 마음을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일에 쏟아붓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회원 20여 명이 2명씩 한조가 되어 영아원을 매일 방문한다. 버려진 영아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혼자서는 외부일을 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기 위해 차량운행 등 이동봉사도 한다.

모두가 쉬고 싶어하는 일요일. '맑고 향기롭게' 사람들은 이 휴식의 시간을,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맑고 향기롭게 서울 사무실은 12월에 있을 음



악회 준비로 바쁘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맑고 향기로운 가족음악회'의 1회 때는 고 김광석, 노영심 씨가 노래를 해주었는데 2회부터는 회원들이 직접 꾸미는 음악회로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모아 전국 지부회원들이 직접 잔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4시~6시까지 동국대학교

증강당에서 열리게 될 이 음악회에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법정스님의 청정한 말씀들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강릉 자비원 원생들과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도 우정출연하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외롭고 쓸쓸하고 춥게 한다는



연말이다.

비록 진흙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굴하지 않고 청정한 꽃으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들 가슴에 연꽃 한송이를 새기며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추운 겨울을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또한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한다. 72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어주세요!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뜻을 내신 분이면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본 모임에서 벌이는 여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재정 후원은 자유롭게(정해진 금액없음)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서울02-741-4696/부산 051-898-2672/춘천 0361-53-6000/대전 042-585-0735/광주 062-653-0048/경남 0551-66-0170